유랑 500년 흥천사 동종, 이젠 '환지본처'할 때

다시 돌아와야 할 성보들 ① 흥천사 동종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내가 왕위에 오르기 전 신덕왕후의 내조가 실로 많았다. 뜻밖에 세상을 떠나니 어진 정승을 잃은 것처럼 슬퍼 저승길 복록을 바라면서 이 절(흥천사)을 창립했다. 그 은택을 미루어 나라를 복되고 만물을 이롭게 해 길이길이 다함이 없도록 해야할지니 나의 이 뜻이 후세에 밝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라."

조선 초 문신인 권근이 쓴 '정릉원당조계종본사흥천사조성기' 중 태조 이성계의 하명을 정리한 부분이다. 정릉 원당인 흥천사의 탄생 배경과 의미, 신덕왕후에 대한 태조의 애정을 소상히 기록하고 있다.

조선 태조 마지막 찐사랑 '신덕왕후'

신덕왕후 강 씨는 '경처(京妻)'로,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는 데 조언자 역할을 했다. 이방원이 정몽주를 암살한 뒤 이성계가 아들에게 "불효를 저질렀다"고 꾸짖자, "공은 천하의 대장군을 자처하시면서 어찌 놀라고 두려워하십니까(〈태조실록〉)"라고 나무라며 이방원을 추켜세운 것이 신덕왕후 강씨다. 결국, 이방원을 통해 고려의 마지막 보루였던 정몽주를 과감하게 제거한 것은 조선왕조 건국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어려운 시절, 안팎으로 자신을 보좌하며 조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 세운 왕비 신덕왕후에 대한 태조의 총애는 남달랐다.

실제, 신덕왕후가 병환이 깊어지자 스님 50여 명을 불러 병환의 쾌유를 발원하는 기도법회를 열었다는 기록을 〈태조실록〉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신덕왕후가 죽은 뒤에는 아침저녁으로 흥천사에서 재를 올리도록 했으며, 흥천사 종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태조가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조선의 첫 왕비 신덕왕후는 태조의 마지막 사랑이었던 것이다.

통치 이념에 흥천사 명운 갈려

신덕왕후릉인 정릉은 본래 황화방(현 덕수궁 북쪽)에 있었지만, 훗날 정적이 된 태종 이방원은 자신이 왕위에 오른 후 정릉을 후궁릉으로 강등시키고 1409년 사을한(현재 정릉 위치)으로 이전시켰다. 능침사찰인 흥천사도 분사(分司)됐고, 이 사찰은 신흥사라는 이름으로 불리웠다. 이 시기는 "흥천사와 신흥사가 공존하는 시기(문명대 교수)"였으나, 흥천사는 1424년까지 조계종 본사의 기능을 수행했다.

세조는 신덕왕후 등 왕실 조상의 명복과 중생구제를 발원하며, 1462년 조선왕실 최초로 범종을 조성해 흥천사에 헌납하기도 했다.

문제는 연산군이 즉위하며 발생했다. 연산군은 재임 후반부에 본격적으로 불교를 탄압했다. 1504년 연산군은 세조가 세운 원각사를 폐사시키고 장악원을 만들어 기생들을 양성했다. 흥천사의 1차 화재가 발생한 것도 이 시기다.

1506년 중종이 즉위했지만 불교 탄압은 꾸준히 발생했다. 유생들은 왕립사찰 황화방 흥천사의 물건을 사사로이 훔쳤고, 이를 조사하기 위해 파견된 내시를 돌로 내려치는 패행을 보였다. 이후 1510년 3월 28일 부처님 진신사리가 봉안된 사리각이 전소됐다.

대노한 중종은 유생들을 '미친 아이(狂童)'라고 부르며 수사할 것을 강하게 지시했지만, 유림들은 석가모니 부도가 사라진 것은 "유가(儒家)의 경사"라며 "폭군 연산군도 흥천사, 흥덕사 방화를 묵인했다. 임금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 화가 반드시 종사를 전복시킨다"라고 상소를 올렸다. 조선을 연 태조가 세운 왕립사찰을 유생들이 불을 질러 전소시켰음에도 중종은 '종사 전복' 운운에 아무런 손도 쓰지 못했다. 결국, 1512년 중종은 흥천사 토지를 사대부들에게 나눠줄 것을 명하며 황화방 흥천사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Never Ending' 흥천사 동종 유랑사

폐사된 황화방 흥천사의 세조 발원 동종은 당연히 이장된 정릉의 능침사로 이운되는 게 순리였지만, 그리되지 못했다. 홀로 남겨져 오갈 데 없어진 흥천사 동종은 남대문으로 옮겨져 왕실 관리들에게 출근 시간을 알리는 역할을 했다. 이는 〈중종실록〉 1541년 6월 1일 기록에 상세하게 기록돼 있다.

신덕왕후 원당으로 조성된 '흥천사'
태종, 왕후릉 폐지 정릉 이전 분사
1504 · 1510년 화재 전소 후 폐사

1669년 왕후릉 복위…흥천사 중창
흥선대원군 '흥천사'명 복원하기도
原흥천사 법맥, 현재 흥천사 계승해
"역사 이은 흥천사로 동종 복귀를"
동종 환수, 지역 인프라 확장 도움

"김안로가 늘 말하기를 '성 밖에 사는 신하들의 집이 조시(朝市, 조정과 저자)에서 멀기 때문에 새벽 종소리와 저녁 북소리를 들을 수 없다. 그러므로 그들이 조정에 출근할 때에도 그 때문에 지각을 하게 된다' 고 했다. 병신년(1536년)에 정릉의 종을 남대문으로 옮기고, 원각사의 종을 동대문으로 옮기고서 각(閣)을 짓고 종을 달았다. 그리고 새벽과 저녁에 그 종을 쳐서 성 밖에 사는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했다."

하지만, 이 용도는 오래가지 않았고, 종각도 허물어졌다. 애물단지가 돼 방치되던 흥천사 동종은 영조 대에 이르러 다시 주목 받게 된다. 〈영조실록〉 1748년 5월 8일 기록에 따르면 영조는 어가를 타고 이동하던 중 동대문 안과 광화문 밖에 종들을 발견해 살펴봤는데 종에는 선왕들의 어휘와 어제들이 있었다. 이에 영조는 "친제(親製) · 친필(親筆)은 존경해야 될 것인데 수백 년 동안 방치함으로써 비바람에 씻기게 내버려 뒀으니, 매우 송구스러운 일"이라며 각각 한 칸씩 집을 짓도록 하명했다.

근대에 이르러서 흥천사 동종은 다시 이운된다. 흥선대원군은 광화문을 신축하고 문루에 흥천사 동종을 걸었지만, 일제의 침탈이 시작된 1910년 창경궁에 새로 지은 이왕가박물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당시 상황에 대해 언론인 차상찬은 '흥천종의 유래'라는 글에서 "이사를 왔으나 명색이 미술관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문간 행랑살이를 하게 됐다"고 토로하고 있다. 박물관 내부가 아닌 야외에 동종이 방치돼 있었던 것이다. 1938년 이왕가박물관이 덕수궁 석조전으로 이전하자 함께 이운돼 덕수궁 광명문에 걸렸고, 흥천사 동종은 전시물로 전락하게 된다.

현대에 와서도 흥천사 동종의 수난사는 끝나지 않았다. 덕수궁 광명문에 있던 흥천사 동종을 보러 온 관람객들이 동종 내부에 수정액으로 온갖 낙서를 해놓는 등 사실상 방치돼 있었기 때문이다. 2006년에 이르러서야 조선 첫 왕실발원 범종임을 인정받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460호로 지정된다. 이후 문화재청은 2018~2020년 광명문을 해체해 원래 위치인 함녕전 남쪽 터로 옮겨 복원하며 흥천사 동종은 보존처리에 들어갔고, 최근 완료했다.

하지만, 흥천사 동종의 유랑은 이어지고 있다. 문화재청이 국립고궁박물관 외부에 보호각을 설치해 전시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지난 4월 19일 문화재위원회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되자 불교계 측 위원들은 일제히 문제를 제기했고, 현재 이전 방안을 조계종과의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



첫 조선왕실 발원 동종인 흥천사 동종. 2006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됐다. 덕수궁 광명문에 걸렸으나 2018년 광명문 이전 사업이 시작되며 보존처리에 들어갔다.



흥천사 대방 전경. 흥선대원군이 쓴 '흥천사' 현판이 보인다. 신흥사에서 '흥천사'로 명칭이 변경된 것은 원(原)흥천사의 역사성을 현재의 흥천사가 그대로 계승했음을 의미한다.

'原흥천사' 역사 이은 '現흥천사'

불교계와 학계는 더 이상 흥천사 동종을 '문간 행랑살이'와 같은 야외 전시물로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제는 일신해 가람을 바로 세운 흥천사가 원(原)흥천사의 역사를 계승하고 있는 만큼 흥천사 동종이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한국미술사학계 원로인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한국미술사연구소장)는 수차례에 걸쳐 발표한 논문과 기조발표를 통해 흥천사 동종이 흥천사로 돌아와야 함을 주장해 왔다. 그 이유 역시 현재의 흥천사가 황화방 흥천사의 역사성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어서다. 특히 대원군이 흥천사 명을 복원시킨 것에도 큰 의미를 뒀다.

문 명예교수는 '흥천사의 역사와 흥천사 대종의 귀환' 주제의 기조발표문에서 "1669년 송시열 등의 건의에 따라 신덕왕후의 정릉이 다시 왕후릉으로 복위되며 현 흥천사가 능침사로서 역할을 했다. 이후 19세기에는 적조암, 극락보전, 명부전 등이 중창되며 불사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원군이 1865년 새 흥천사인 신흥사가 원 흥천사를 완전히 계승했다는 뜻으로 흥천사 명을 복원시킨 것은 흥천사가 원래 황화방 흥천사의 역사성을 계승했음을 명실상부하게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야외 보호각 안으로 흥천사 동종을 이전시키는 계획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상근 문화재환수연대 대표는 "국립고궁박물관은 조선 왕실과 대한제국 황실의 유물을 전문으로 연구하고 보존 · 전시하는 곳"이라며 "흥천사명 동종이 조선 왕실에서 발원했지만, 어디까지나 사찰 성보로서 조성됐다. 이를 왕실 유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흥천사 주지 각밀 스님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흥천사는 조선왕실 불교의 시작과 끝이었다. 이제는 흥천사로 돌아와 왕실 발원 성보로서 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태조 이성계와 신덕왕후의 애틋한 사랑이야기를 담은 흥천사와 동종은 문화콘텐츠로서도 활용 가치가 높다. 지역문화 인프라 확장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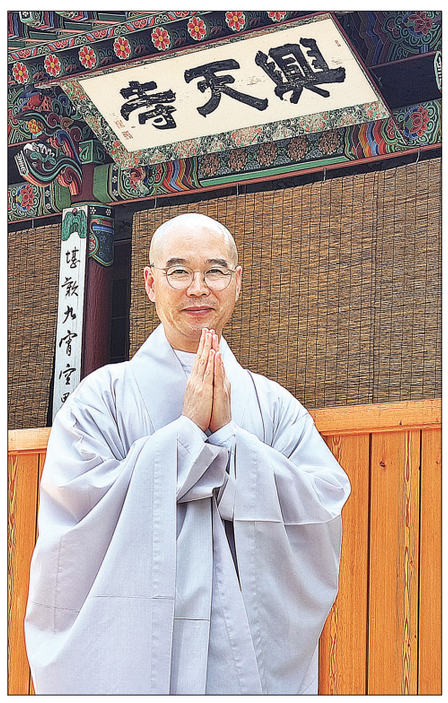
이어 "고증자료와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해 문화재청과 환지본처를 위한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사중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사부대중과 함께 정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화방 흥천사가 폐사되고 방치된 동종이 유랑을 시작한 지 올해로 512년이다. 흥천사 동종은 정치적 복수로, 통치이념을 이유로, 성보로서의 가치를 잃고 이곳저곳을 떠돌다 이제는 박물관 야외 전시물로 전락할 위기다.

흥천사 동종의 500년 유랑사는 이제는 끝나야 한다. 그 끝은 박제된 유물이 아니다. 부처님 법음을 전하는 성보여야 한다.

인·터·뷰
흥천사 주지 각밀 스님

"동종 환수, 조선왕립 흥천사 가치 되살리는 불사"



2014년부터 동종 환수 추진
학술대회 통해 당위성 입증
보존 · 활용 방안들 '무궁무진'
관리단체 지정받아 관리 계획

"흥천사는 조선왕실이 발원한 첫 사찰이고, 흥천사 동종도 왕실이 발원한 첫 범종이다. 다시 말해 흥천사는 조선왕실 불교의 시작과 끝이었다. 동종의 환수는 이런 흥천사의 가치를 되살리는 일이다."

흥천사 주지 각밀 스님은 7월 4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흥천사 동종 환수의 필요성에 대해 이 같이 밝히며 말머리를 풀었다.

흥천사는 2014년부터 꾸준히 동종의 환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한국미술사연구소와 함께 흥천사의 역사와 동종 환수의 당위성을 조명하는 학술대회들을 개최하며 환지본처의 당위성을 입증해나가고 있다. 다음은 동종 환수 관련 일문일답.

Q. 원(原)흥천사와 현 흥천사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다.

A. 이는 7월 2일 열린 한국미술사연구소가 개최한 '600년 왕실 원찰 흥천사 대종의 흥천사 귀환' 학술대회에서 증명됐다. 현재의 흥천사는 정릉의 이장과 함께 함취정 터에 새로운 흥천사라는 의미로 신흥사라고 칭해지며 능침사찰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100년간 두 흥천사가 공존해왔지만, 정릉의 능침사찰로의 역할로서 건립된 현재의 흥천사가 역할을 했다. 황화방 흥천사의 폐사된 후에는 그 기능을 현재 흥천사가 담당해왔다. 또한 신흥사라는 명칭은 흥선 대원군으로부터 편액을 하사받으면서 흥천사라는 명칭으로 바뀌게 된다. '흥천사'라는 사명의 회복은 국가 사원과 능침사찰로서의 기능과 법맥을 현재 흥천사가 이어가고 있음을 국가가 인정한 것이다. 현재의 흥천사는 그 법맥을 이어오고 있다.

Q. 흥천사 동종 이전 장소로 국립고궁박물관 야외 보호각이 거론되고 있다.

A. 흥천사 동종은 전시 관람물이 아니라 법음을 전하는 성보다. 이를 감안하면 조선 최초 왕실사원의 법맥을 이어가는 흥천사에 마땅히 모셔져야 한다. 이를 문화재청에 지속적으로 어필할 계획이다.

Q. 국유문화재인 흥천사 동종이 민간에 보내는 것은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다.

A. 문화재보호법 제66조를 보면 국유문화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를 양도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다만, "관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 일정한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명문화돼 있다. 이를 근거로 '흥천사 동종'의 환지본처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흥천사는 관리단체로 지정받아 동종의 가치를 보존하려 한다. 현재의 흥천사는 동종을 관리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

Q. 흥천사 동종이 환수된다면 어떻게 보존 관리하실 것인가.

A. 현 종각을 활용할 수도 있고, 새로운 보관처 설립도 가능하다. 흥천사 주위 토지가 많기에 보존 공간은 얼마든지 조성할 수 있다. 무엇보다 첫 조선왕립 사찰인 흥천사는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유형문화재 등 등록문화재만 22개다. 아직도 공개 못한 문화재들도 적지 않다. 이 같은 문화재들과 태조와 신덕왕후의 애틋한 사랑 등은 충분히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다. 동종의 환지본처는 이를 위한 '화룡점정'이다. 이 같은 콘텐츠가 개발된다면 지역문화 인프라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Q. 흥천사 동종 환지본처를 위한 향후 계획은

A. 인도에 타지마할이 있다면, 한국에는 정릉과 흥천사가 있다. 타지마할은 왕후의 묘이지만, 태조는 왕후릉과 사원을 함께 조성한 것이다. 흥천사 동종 환지본처는 그 가치를 더욱 격상시키는 불사다. 그래서 동종의 환지본처는 흥천사의 모든 사부대중의 최대 염원이다. 실무적으로는 고증자료와 보존관리 방안을 잘 정리해 문화재청에 제출해 환지본처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